

2026. 6. 1 (월)

젠슨황 방한 기대감: 다른 시각의 해석

- 젠슨황 CEO의 방한의 표면적인 시장 해석은 ‘피지컬 AI 기대감’
- 만약 ‘소버린 AI와 한국 AI 데이터센터’가 초점이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피지컬 AI/AI SW에 더해 ‘국내 AI DC 운영’ 밸류체인을 고려해야할 것
- 후보는 DC 운영 역량 있는 대기업 SI 계열사, 대형 인터넷/플랫폼, 통신사업자 등
- 이후 1) 전력 수전, 2) GPU 조달계약, 3) anchor tenant 문제 해결 가능성 체크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지난주 금요일 KOSPI 상한가 종목들의 주가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피지컬 AI, 로봇, AI 소프트웨어 테마로 해석됨.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가능성, 그리고 LG·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의 회동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관련 기업군에 빠르게 반응. 그러나 이 움직임을 단순히 “로봇 테마” 또는 “AI 소프트웨어 테마”로만 해석하기에는 반응의 범위가 넓었다고 봄. 보다 본질적인 해석은 한국 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일 수 있다는 것

엔비디아의 전략은 GPU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sovereign AI, AI factory를 각국 산업 구조 안에 심는 것. 이는 국가별·산업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제조·통신·클라우드·로봇·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구조. 따라서 젠슨 황 CEO의 방한은 특정 기업과의 단발성 미팅이라기보다, 한국이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 전략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확인하는 이벤트로 봐야 함

이 관점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의 한국시장 주가 반응은 피지컬 AI라는 헤드라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짐. 시장이 반응한 대상은 “AI 서비스를 누가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AI를 돌릴 물리적 기반을 누가 구축하고, 누가 운영하며, 어떤 산업 생태계가 그 위에 올라갈 것인가”에 가까웠음. 즉 GPU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 통신망, 제조 데이터, 로봇·자동화, DX 솔루션이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

소버린 AI라는 키워드가 중요. AI 인프라가 단순히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안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 주요 산업 주체가 자국 내 데이터, 자국 내 컴퓨팅 인프라, 자국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 한국 역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전자, 통신, 인터넷 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제조·디지털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AI factory 구축에 하드웨어적으로 용이한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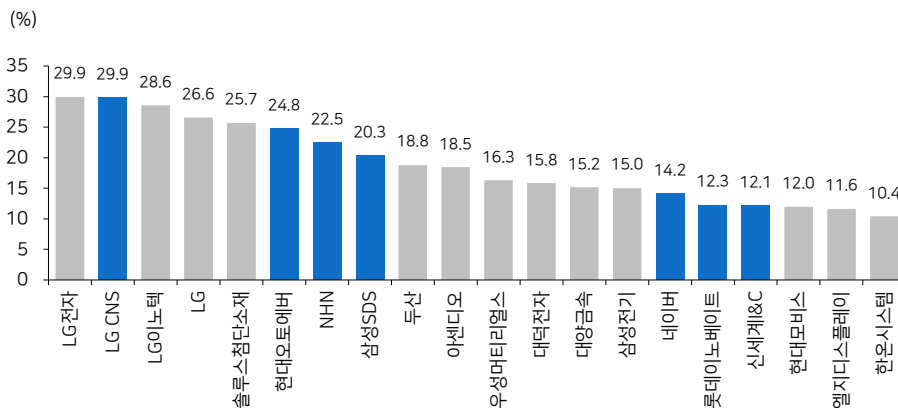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시장 반응은 “AI가 좋아진다”는 추상적 기대보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에 가깝다고 봄. SK, LG, 현대차, 네이버,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기업군이 동시에 주가 반응이 나오며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시장이 이들을 한국형 AI 인프라 생태계의 잠재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 GPU를 공급받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조달하고,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제조 현장과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전체 구조가 하나의 투자 테마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

결론적으로 젠슨 황 CEO의 방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피지컬 AI라는 단어 자체가 아닐 것. 핵심은 세 가지로 보는데 1) 한국 내 GPU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2) sovereign cloud와 AI factory가 한국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3)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통신, 제조, 전력·냉각, 로봇·자동화가 하나의 운영 생태계로 연결되는지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이라는 어젠다가 새로운 테마로 떠오른다면, 대규모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가진 대기업 계열사 SI, 인터넷/플랫폼 기업, 통신사업자 등이 1차적인 후보군이 되겠음. 이후 체크해야할 것은 이들의 AI 데이터센터의 건설 관련 실질적인 병목인 1) 전력 수전, 2) GPU 조달계약, 3) anchor tenant 문제 해결 가능성이 체크되어야 할 것

정리하면 젠슨 황의 방한 이벤트의 시장이 표면적인 관심은 피지컬 AI일 수 있음. 그러나 시장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소버린 AI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것

그림1 5/29 일간 KOSPI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과 SI 기업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